# 한국문화원의 활성화는 문화수출의 지름길

유 재 기 | 문화관광부 문화교류과 과장

지금 세계 각국은 문화의 부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즈음하여 문화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자국문화의 세계화 작업을 위한 전략을 꾸미느라 가능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5천년 역사의 문화민족답게 이미 세계 주요지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고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자국의 문화원을 설치하고 자국의 문화 보급과 이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원들과 한국 내에서의 외국문화원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해외에서의 한국문화원

정부는 1979년 5월 10일 처음으로 일본 도쿄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 5일에는 뉴욕, 그 이듬해 4월 11일 LA, 12월 16일에는 프랑스 파리에 한국문화원을 각각 설치하였다.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성년이 지난 셈이다.

그 후 1993년 3월 미국 워싱턴 D.C에 다시 한국문화원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중국 베이징, 1994년 11월 독일 본(현재 베르린으로 이전), 1995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각각 한국문화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현지 공관청사 내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 · 설립하고 있으나 문화원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오타와에는 1998년 12월에, 일본 오사카에는 1999년 3월에 각각 문을 열고 있어 명실공히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공식 명칭은 ' 문화홍보원 )이 10개소에 이른다. 그러나 중남미지역을 비롯, 중국 상하이, 베트남 등 일부 주요 국가에 한국문화원 설치는 계속 미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해외의 한국문화원의 주요 기능은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문화한국 이미지 세계선양을 비롯하여 국제간 문화교류 활성화 등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해외의 한국문화원의 주요 기능이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간 문화교류 활성화 등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인력과 예산을 살펴보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문이 적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화가 함축되어 있는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 강좌·강연, 공연·전시행사의 현지 개최 및 지원, 영사회 개최, 각종 영상자료 및 도서실 운영, 주요 이슈별 수시 홍보자료 및 정기간행물 제작·배포, 현지 주요 언론 대상 한국 소개 및 주요 인사와의 만남, 주재국 내 문화예술정책 동향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각종 자료 수집 등 다 열거하기엔 너무 번잡스러울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인력과 예산을 살펴보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문이 적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예산만 충분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되는 것도 아니고, 우수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과 인력은 필수사항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한국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1998년도 48억5천9백만원, 1999년도 55억8천9백만원, 2000년도 64억5천4백만원(문화관광부 44억9천1백만원, 국정홍보처 19억6천3백만원), 2001년도 64억1천7백만원(문화관광부 43억5천만원, 국정홍보처 20억6천7백만원)으로 건물임차료와 경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턱없이 적어진다. 상기 10개의 한국문화원 건물 중 LA는 단독청사로 국유재산이고 파리는 아파트 반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국유재산으로 한 것 외에 8개 문화원은 모두가 임차사용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유지하면서 자국의 문화 소개에 진력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면 개선되어야 할 부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1997년 말 IMF를 맞으면서 해외에 있는 문화주재관을 대폭 감원 조치하였는데 당초 각 문화원별 3명의 주재관이 현재는 2명으로 문화원장 1명과 과장급 1명(파리는 사무관 1명)이 고작이다.

물론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현지 인력을 채용하여 문화원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외교관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 때문에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이들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연유로 전문지식을 겸비한 능력있는 인재들은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해외 한국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자국문화 현지 진출의 전진기지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쿄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경우, 1979년 개원 당시에는 히가시 이께부끄로 션샤인시티 빌딩 5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료

가 비싸다는 이유로 1995년 3월 현재의 위치인 港區 南麻布 1-7-32 민단(民團) 중앙회관 부속 아파트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건물로 이전한 한국문화원 전용 면적이 237평이고 전시회 등 다중이 모여 교류행사를 치르기 위한 민단강당(153평)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문화원은 1980년 12월 개원, 20년이 넘게 오래 지탱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리 시내 16구에 있어 건너편 가까운 곳에는 기메동양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주위 여건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아파트의 반지하 1층과 지상 1층(161평)을 국유재산으로 구입·활용하고 있어 주위의 시설을 끌기에는 역부족일뿐 아니라 문화원의 제기능을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다.

뉴욕문화원은 *Park Avenue* 5번가에 있는 건물 6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때 소호지역 독립청사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역시 재원염출 문제로 좌절되고 말았다. 인근의 콜롬비아대학과 *Seaton Hall*대학 등 한국학과 설치대학과 *Asia Society* 및 *Korea Society*를 비롯, 각 문화연구소 등 현지 커뮤니티들과 협조하여 우리문화 선양에 진력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 중 국유재산으로 적정한 위치에 독립청사를 확보하고 있는 곳은 LA 한국문화원뿐이다. 이곳은 미주류 개념을 기존의 백인커뮤니티에서 보다 확대하여 히스패닉과 다민족커뮤니티와 많은 연계 행사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물론 NY 한국문화원이 미국 동부를 담당한다면, LA 한국문화원은 서부지역을 중점 대상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문화 수출 전진기지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문화와 과학의 수출을 꾀하기 위한 수출 전진기지로 자국 문화원을 적절히 활용한다. 각국의 문화원에서는 현지인들이 쉽게 자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종합공간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각 나라별 문화원은 그 나라 고유의 브랜드에 걸맞게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자국문화원을 두는 데는 파견국 국민들의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도, 경제력과 더불어 국가 위상이 커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우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여기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 문화수출을 위해 해외에는 어떤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개략적으로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웃 중국은 세계 89개국에 270여명의 문화주재관을 파견, 자국문화 선양에 주력하고 있는데, 1998년 8월 중앙정부 구조조정시 문화부 본부인력 약 50%는 감원조치하였으나 대외문화교류 분야에서는 단 한명도 감원조치하거나 기구 축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자국문화 해외진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세계 주요국가에 '중국문화의 해'라는 명칭 하에 중국문화 해외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 문화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문화부를 살펴보면 문화부 전체 41개처(우리의 과(課)와 유사함) 중 대외 문화연락국은 14개처를 구성하고 있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전 세계 24개국 29개처에 광보문화원을 두고 외교관 94명과 180여명의 현지 인력을 투입하여 일본문화 보급에 많은 노력을

*각국의 문화원에서는 현지인들이 쉽게 자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종합공간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해외에 자국문화원을 두는 데는 파견국 국민들의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도, 경제력과 더불어 국가 위상이 커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우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기울이고 있다. 1957년 미국 뉴욕에 최초 광보문화원을 설치한 후, 미국에만 워싱턴(1980년) 아틀란타(1989년) 샌프란시스코(1968년) LA(1990년) 시카고(1977년) 등 6개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치하고, 아시아지역에는 한국(1970년)을 포함, 인도 뉴델리(1964년) 싱가폴(1974년) 홍콩(1967년) 필리핀 마닐라(1966년) 등 5개처, 유럽지역은 오지리 빈(1966년) 네델란드 헤이그(1979년) 스위스 제네바(1963년) 프랑스 파리(1969년) 벨기에 브랏셀(1976년) 폴란드 바르샤바(1988년) 영국 런던(1962년) 등 7개국가 7개처, 중남미지역에는 알젠틴 브에노스아이레스(1961년) 브라질 리오데라네이로(1966년) 멕시코 멕시코시티(1967년) 등 3개국 3개처에 각각 광보문화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멜버른(1978년) 뉴질랜드 웰링통(1968년) 이란 테헤란(1970년) 이집트 카이로(1964년) 케냐 나이로비(1974년) 러시아 모스크바(1987년) 카나다 토론토(1971년) 등 세계 주요국가 주요지역에는 빠짐없이 일본의 광보문화원을 설치했다.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 수출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The British Council*이라고 명명하는 영국문화원을 1934년도 최초로 설립하고 현재 전 세계 110개국에 254개소에 달하는 문화공간과 어학센터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문화원은 *Royal Charter*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등에 관한 교류 및 대외협력을 수행하는 영국 정부의 공식 기구로, 1999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4억2천4백만 파운드인데, 우리 화폐로 환산하면 약 7,229억 여원의 엄청난 규모이다.

이 재원은 정부 보조국이 1억3천5백만 파운드, 회원가입비, 영어강좌 수업료, 영어자격 시험전형료 등 수익사업으로 1억4천9백만 파운드를 벌어들인다. 그리고 계약 및 대행수입으로 1억3천9백만 파운드, 투자수입에서 1백만 파운드를 벌어들여 영국문화 해외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은 *Goethe-Institute*라고 하는 독일문화원을 1951년에 최초로 설치하고 현재 76개국 127개처에 3천4백여명의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Goethe-Institute*의 법적 성격은 독일정부와 계약체결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다. 독일문화원의 경우 1999년도 예산규모가 4억4천만 DM인데 한화로 환산하면 약 2,297억원에 이른다. 이 재원은 독일정부 지원이 3억 DM이고, 자체 수입이 1억3천만 DM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전 세계 127개국에 150여개의 문화원과 220여개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명칭은 주재국

가별로 상이하다. 주요 명칭을 보면 대사관 문화과 *Service Cultural* 프랑스문화원 *Contre Cultural Francais* 알리앙스 프랑세즈 *Alliance Francaise* 프랑스 연구소 *Institut Francais* 문화사업 교류센타 *Service de Cooperation ed d'action Culturelle* 등으로 다양하다. 프랑스문화원의 경우 대사관에서 같은 기능을 병행하는 곳도 있고 대사관(문화과), 문화원,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별도로 각각 운영되는 곳도 있다.

### 한국 내 외국문화원

우리가 해외 주요지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하여 한국에 관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듯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자국문화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러 채널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으나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문화 해외수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시 음미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외국문화원의 기능과 역할 등이 대동소이하지만 여기서 각 문화원별 개략적인 소개를 통한 독자들의 외국문화원의 이해와 해외 한국문화원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서울에 대사관 내 문화과를 두고 문화참사관 1인에 문화관 2명을 두고 중국문화 한국진출을 위한 갖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문화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고 금년 11월경 개원을 목표로 한 별도의 주한 중국문화원(中國文化中心)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타 국가의 문화원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한 일본광보문화원의 경우 1971년 7월 주한 일본대사관 내 공보관실 개소 이후 1975년 2월 현재의 종로구 운니동에 在 大韓民國 日本國大使館 公報文化院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문화원에는 일본 국제교류기금 직원을 포함한 주재관 10명과 현지 채용직원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규모는 대지 510평에 연건평 610평이고, 지하 1층(100평), 지상 3층(층별 170평)인 주한 일본광보문화원도 다른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자국문화원들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적 대일 인식 조성과 일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자료 제공은 물론 일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광보문화원은 232.96㎡의 전시실과 453.6㎡의 도서관에 2만 2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면서 일본 음악정보센타 개설과 더불어 복합적인 자국문화 소개를 통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국어 보급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영사회, 강연회, 전시회, 세미나 개최, 유학생 교류, *Japan Foundation* 기금을 활용한 각종 초청사업, 청소년 교류사업 등 그 수와 양은 실로 엄청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3월에 개설한 종로구 신문로 1가에 소재한 *Japan Foundation* 서울사무소 성격의 서울 일본문화센터인데 민간차원의 문화원 기능을 성실히 해나가는 데 손색이 없다고 한다. 이 센터는 3층 건물 360평에 지하 300석 및 80석 규모인데, 극장 운영방식은 한국문화원 해외 진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우호적 대일 인식 조성과 일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자료 제공은 물론 일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광보문화원은 232.96㎡의 전시실과 453.6㎡의 도서관에 2만2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면서 복합적인 자국문화 소개를 통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주한 영국문화원 *The British Council*은 1973년 8월에 개원한 이래 중구 태평로 1가 중후빌딩에 있는데 본국 파견자 3명과 30여명의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영국센터 내에 상공회의소, 관광청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 영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인사 상호교류, 연구프로젝트 지원의 학술 · 문화행사 유학박람회 개최를 포함한 유학상담, 영어교육, 각종 영국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문화원은 근래 와서는 고급공연 위주에서 탈피해 자국의 문화산업분야와 과학분야 행사들을 개최 · 지원하는 등 비지니스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 세계 54개국 130여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학센터는 영연방 교사자격증을 갖춘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효과적인 영어교수법으로 유명한데 주한 영국문화원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한 프랑스문화원은 지난해 말 중구 봉래동 우리빌딩으로 이전하며 문화원 업무가 프랑스대사관 문화과로 편입되어 공식적으로는 문화원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행정 처리는 13층의 문화과에서 처리하고 일반인 등은 18층의 프랑스연구소 *Institut Francais*를 찾는다. 여기는 최신 프랑스의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을 비롯 1만3천여권의 책자 · 비디오테이프 · 음악CD 등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과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10여대의 컴퓨터를 통한 영상자료나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시청각실, 유학상담실, 그리고 휴식공간 카페 등의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는 해외에 두는 자국문화원 내에 문화참사관을 두고 시청각 · 영상담당전문가, 큐레이터 등 전문가 한두 명을 포함, 협력부서로 과학관 · 교육관을 두고 있어 종합적인 문화협력은 물론 현대의 프랑스과학과 기술협력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주한 프랑스문화원(문화과)에는 13명이 근무하는데 문화참사관 1인과 대외협력관, 문화예술담당관, 시청각영상담당관, 교육담당관, 과학기술담당관 등이 있다. 베이징에 있는 주중 프랑스문화원의 경우를 보아도 문화참사관이 문화원장을 겸직하고 협력부서로 교육관(1등 서기관) · 과학관(1등 서기관)과 같이 일을 추진한다.

주한 독일문화원 *Goethe-Institute*은 용산구 후암동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규모는 대지 750평에 건평 670평에 이르고 있다. 다른 국가에 있는 *Geothe-Institute*와 같이 독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문화원장(참사관)을 포함한 주재관 6명과 현지 채용직원

25명, 그 외 외부 어학강사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조직으로는 문화부, 어학부, 연수부, 행정 · 기술부, 정보센타(도서관)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히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문화원 역시 자국어 보급을 위해 어학강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독일어학증명시험을 시행한다.

미국의 경우는 타 국가들처럼 별도의 문화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사관 내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용산구 남영동에 한국기관과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미국정책에 관한 연구 및 참고자료 제공 등을 위한 자료정보센타 *Information Resour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전문사서 7인이 있고, 주한 미국대사관의 주요 업무부서와 관련된 정보나 한 · 미관계 관련 각종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안내서비스 *Article Alert Service*가 있다.

이 외에 1년에 몇 차례의 *Speaker and Lecture* 프로그램과 한 · 미관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환프로그램, 풀브라이트위원회로 알려져 있는 한 · 미교육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 교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미국 문화 · 공보관련기구는 1999년 해외주재 미공보관 *USIS*이 대사관 일부로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기구변화를 가져왔다. 대사관 내 한국인 35명을 포함 43명의 공보관 직원이 있는데 이 중 본국에서 파견한 문정관은 정보센타 운영, 교환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주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 외 한국 내 여타 국가들의 문화원은 다음과 같다.

주한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은 종로 교보빌딩 11층에 있는데 문화 · 홍보 · 언론담당관 등 4명의 인원이 있다. 별도의 내부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호주의 문화예술 소개 및 교류프로그램과 각종 호주 소개자료 제작 배포, 국내 주요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Istitute Italiano Di Cultura*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도 타 문화원과 같이 도서관 운영(매주 수요일 운영) *Informazioni per lo studio in Italia* 운영 및 유학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예술 교류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탈리아 언어강좌는 좋은 예의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문화예술연구원이 성북구 성북동 성락원 내에 자리잡고 있는데, 규모는 20평으로 1999년 7월 사단법인으로 우리 한국인 전문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고 문화원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종로구 원서동 원서빌딩에 포르투칼문화원이 있고, 서초구 서초동 원서빌딩에 이스라엘문화원이, 용산구 한남동 멕시코대사관 내 멕시코문화원이 있는 등 어떤 형태로든 각국은 자국 문화 소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한국문화원 효율적 운영과 새로운 방향

우리는 앞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해외문화원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이들의 예산규모, 인력, 문화원 공간 등을 비롯해 세계 요소요소에 문화원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왜소함을 느끼

*해외 한국문화원이 다소 열악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세계가 이미 문화전쟁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어진 여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21세기 문화 세기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 제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게 된다.

중남미지역과 중동지역, 아프리카지역에는 아예 한국문화원이라는 이름조차 없는 실정이다. 아·태지역에는 일본과 중국이 고작이고, 유럽지역은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이 고작이다. 이들 문화원의 기능도 원 소속부처가 달라 역할 추진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우리문화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개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현지인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분야별 전문 인력들이 엄청나게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적정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에는 1998년 IMF를 겪으면서 과거 문화원별 3명의 주재관이 주재하던 것을 2명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우리문화산업의 해외 수출이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부분적이나마 중남미지역을 포함한 신규 문화원 설치와 적정인력 확보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해외 한국문화원이 다소 열악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세계가 이미 문화전쟁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어진 여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21세기 문화 세기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 제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과 기능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인력인데 문화원을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지식과 현지어 구사는 우리문화 현지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주재관 파견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한국문화원 내 인적구성으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해외 한국문화원에 원장은 문화주재관으로 하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나 한국국제교류재단 같은 문화예술진흥 및 교류의 전문단체 인력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이는 정부차원으로 하기 어려운 분야는 민간단체교류가 더욱더 효율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로 적정 수준의 문화원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반드시 국유재산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공간 내에 문화원, 관광공사 해외지사, KOTRA 해외지사 등 문화와 관광, 산업분야가 상호 정보교류를 근간으로 한 Korea Center 운영도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도 과거 많이 제출되어 건의되

어 왔으나 일차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문제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다.

셋째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선작업인데, 문화원 내 공연, 전시, 영사회 등의 문화원 직접사업 추진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현지 전문커뮤니티와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공간을 활용하면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지 예술기관이나 단체의 기획프로그램에 합류되면 우리 문화행사 추진의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보다 유익할 것이다.

넷째로는 새로운 홍보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을 활용한 한국문화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홍보기법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한국문화 정보 제공보다는 수요자가 스스로 한국문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다섯째로는 우리 문화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 역할수행 능력의 강화다. 문화에 대한 부가가치를 가볍게 처리하는 국가는 이미 이 세상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갖가지 제도적 장치와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회원제 운영 등 문화홍보 인프라 재국축 등을 통한 소요예산 절감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고, 인적교류를 통한 이들의 사후관리로 한국문화 홍보요원으로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용역을 통해 좋은 제안을 수렴, 추진해 오고 있는데 최상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위해 전력하고 있음도 아울러 이 기회에 밝혀두고자 한다.

### 한국문화 해외 수출을 위한 제언

문화의 부가가치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있게 인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자국문화원에 대한 운영책을 이해하면서 해외의 한국문화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가능한 부문부터 보다 치밀하게 접근해 왔다.

하지만 몇 차례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몇몇의 전문인력과 소요재원 확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해외 한국문화원의 제기능과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임하는 주관자의 자세가 아닐까?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문화 수출에 대한 투자와 주요정책 등을 올바르게 읽고 우리의 현위치 점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문이다.

최근에 와서 한국문화가 중국 일본 베트남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 확산되어 가는데 무엇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국문화 소개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다 진지한 마음과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